

[ 경제 ]

■ 삼성증권 제시 증시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 “코스피 2000 돌파엔 조선·철강·증권 잡아라”

## # 시나리오 I

### 코스피 2,000시대

국내 대표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가계와 금융기관의 자산배분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레밸업이 진행될 것이다.

지수 2,000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현 지수대에서 14%의 추가 상승이 필요하지만 올해 코스피지수가 보여준 주가상승 탄력이 22.2%나 되는 만큼 올해 내 달성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지수 2,000시대 주인공 후보로는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 핵심 종목군과 신성장 동력 에너지를 보유한 종목군,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종목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삼성화재 우리

코스피지수가 이를 연속 조정 받고 있는 가운데 1천700선을 굳건히 지키며 강세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0.72포인트 하락한 1716.56포인트로 마감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11일 코스피지수 2,000시대 등 향후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전략과 투자 유망업종 및 종목 등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코스피지수 2,000시대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가와 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화와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 등이다.

## # 시나리오 II

### GNP 2만달러 초과

투자증권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웅진 코웨이 NHN 다음 효성 유한양행 SK 한국전력 KT&G 등이다.

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금융시장의 발전과 웰빙을 지향하는 소비양극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

만8천372달러였으며 내년을 전후해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망 종목군으로는 금융산업과 소비산업, 헬스케어와 제약 및 고품질 먹거리산업 등 이른바 웰빙산업, 여행 및 레저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종목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지주 신세계 롯데쇼핑 한미약품 유한양행 LG생명과 학 KT&G 풀무원 대한항공 등이 꼽혔다.

신용국가들의 성장세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전체 경제에는 부담이지만

## # 시나리오 III

### 국제 원유가 고공행진

고유가를 함유할 수 있는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며 건조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원화강세는 아시아 통화 동반강세시 한단계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석유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SK 등이 유망하고 오일달러 투자확대와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이 유망하다.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효성 현대건설 태웅 등이 관심주이며 원화강세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하나투어 한국전력 등이 기대종목이다.

## # 시나리오 IV

### 미국·중국 증시 폭락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시장 하락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된 상승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세이다.

이 경우 대외경기에 내성이 있고 비경기순환적인 산업이나 내수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

종목으로는 SK텔레콤 KT 한국전력 KT&G 유한양행 강원랜드 NHN 등이 유망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수입 휘발유 원가 리터당 10원 싸진다

7월부터 관세 2%포인트 낮춰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3%)를 신규로 운용하고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를 연장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직접 효과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리터당 10원(580원→570원) 절감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2년(수입석유 점유율 7.8%)에는 석유 수입사와 정유사의 경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시 공장도 가격에서 최고 리터당 150원을 할인했으나 경쟁이 사라진 지난해(수입석유 점유율 0.8%)는 리터당 60원으로 할인 폭이 축소됐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0.03~0.05%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미국발 경제 위기 한국에 닥칠 가능성”

##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와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 전개과정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10년 전 외환위기가 내부요인에 의해 시작됐다면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동아시아에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라 인한 글로벌 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내년에 1조달러를 넘어 미국 GDP의 8%에 달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면서 "이런 무역적자는 50% 이상이 동아시아 10개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단기 재정증권 발행으로 보전하고 있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무역흑자로 달러를 사들여 외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일본 등 선진국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해 세계경제는 유동성의 홍수에 빠져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거품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4% “회의문화 바뀌야”

## 취업사이트 '사람인' 906명 설문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회사의 회의문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헤드헌팅 서치랩 스카우트 코리아(www.scoutkorea.co.kr)와 함께 직장인 906명을 상대로 현재 회사의 회의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 '불만이다'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별 생각 없다'는 응답은 25.5%였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20.4%에 그쳤다. 회의문화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회의진행·구성이 비효율적이어서'(39.2%),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아서'(26.1%), '회의가 너무 잦아서'(19.0%),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서'(10.8%)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자들의 회의 빈도는 '주1회'(30.9%), '거의 매일'(30.2%),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16.9%), '하루에도 몇 차례씩'(13.1%) 순이었다.

/연합뉴스

# 두승건설 창사 12주년 '제2의 도약' 다짐

두승건설(대표 박석민·사진)은 11일 광주 서구 일곡동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두승건설은 지난 1995년 6월 설립돼 1999년 ISO9002인증을 획득했으며, 2003년에는 토공사업분야 도급순위 5위에 오르는데 등 전문건설 부문에서 급성장했다. 현재는 구 전남도청 일대의 야시 아보화전당 건립부지 내 지장철거공사를 맡고 있다.

박 대표는 "수익성, 생산성, 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춰나가는 한편 고객들 사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직한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희경기자 choice@kwangju.co.kr

# 인터넷 쇼핑물도 현금영수증 발급

## 7월부터 투명성 강화

다음달부터 인터넷의 사이버 물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자를 대신해 소비자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 누구나 참여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버 물에 구축, 제공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G-마켓, 옥션, 엠블, 다음 온켓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도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돼 인터넷 중개시장의 세원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세법은 아울러 6개월 간 매출이 600만원~1천200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통신판매자들에게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1천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의 미등록, 과소 신고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세무담보를 회피하기 위해 ID를 분산하는 통신판매자는 정밀 추적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포착한 뒤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통신판매 업자들의 사업장도 이들의 실제 영업장소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친환경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국제환경기술전시회 LG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24개국 25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책기관 국민연금 탈출 러시

## KDI 등 수혜 많은 사학연금으로 갈아타

사립학교와는 무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화중양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은 2005년 5월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사학연금의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졌다다는 점에서 이들 국책 연구기관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적지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등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미 옮겨갔으며 과학기술원합대대학원은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등 부산하 대학원들의 국민연금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KDI와 사학연금공단,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KDI 본원의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으나 지난 5월17일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한국화중양연구원도 2005년 6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국책연구기관내 교육기능인 대학원의 교수직,연구직(사무직 제외)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은 98년 4월에, 한국화중양연구원의 한국

# 올 여름철 전력수요 사상 최고 하루 6,150kW 전망

## 수급 차질은 없을 듯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점이 사상 처음 하루 6천만kW를 넘을 전망이다. 예비전력의 규모상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11개 전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력수요 최고점과 전력 수급동향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점이 오는 7월19일~26일, 8월6일~17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고 수요 기록이 지난해보다 4.3% 높아진 6천150만kW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여름 이후 청송 양

수발전 1,2호기 등 194만kW의 시설용량을 갖춘 발전소들이 준공돼 최대 공급 능력이 하루 6천754만kW로 3.6% 늘어났다.

따라서 최대 수요점에서의 예비전력은 604만kW로 수급상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정부와 한전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의 최대 수요 예상점은 32.5℃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이보다 2℃가량의 온도 상승이 있으면 최대 전력 수요는 6천354만kW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겨냥, 자율절전 등에 따른 지원제도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의 방식으로 수요관리를 집중 시행해 모두 589만kW의 수요를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직역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지비씨 주식회사	몰마스터 경력사원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06/12	062-350-8170
한국인포데이타㈜ 전담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4	062-360-0503
한국쓰리얼㈜	각부모형 시험모형 엔지니어,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31-359-2003
동서정보시스템	웹디자이너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682-7894
메디포스트(주)	광주/전남지역 병원영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2-3465-6690
㈜한맥D&S	사무보조/문서작성/생산관리지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16	061-393-8141
㈜엘이스	바보시랑에서 MD보조를 채용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717-5018
㈜컴이조아	웹디자이너 경력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6/16	062-233-0064
한섬	경력, 출납 // 영업지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955-7885
한성	의류판매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384-2049
심포니에너지주	태양광사업 영업 및 영업기획, 전기설계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6/20	062-949-7724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7년 분야별 정규 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0	062-524-6900
㈜천우테크	실験 연구 및 제품개발 연구원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6/20	061-462-1944
DS Bid	건설업체그룹-기획,외지재,내지재 (연령제한없음)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06/28	02-555-5548

(광주잡코리아 512-620 제공)